

# 장성군 “편백숲 위를 걷다”

### 축령산 등산로 일대에 38억원 규모 데크길 조성 서삼면 추암리 일대 900m 구간...올해 말 착공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 조림지인 장성 축령산 편백숲 일원에 숲 위를 걷는 데크길이 새롭게 조성된다. 장성군은 축령산 등산로 일대에서 총 38억원 규모의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초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마치고 전담반을 구성한 데 이어 타 지역 벤치마킹과 주민대표 의견 청취, 자문위원 구성 등의 과정을 거쳤다. 군 관계자는 “10월 말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올해 착공

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업 대상지는 서삼면 추암리 산24-68 일원이다. 치유의숲 방면 등산로에서 시작해 대덕 화장실 앞 공터까지 약 900m 가량의 편백숲을 가로지르며 이어진다. 사업 구간에는 수목 분포에 따라 최고 10m 높이로 조성될 예정인 ‘하늘숲길’을 비롯해 전망대와 쉼터, 목교, 포토존 등이 설치된다. 특히 하늘숲길은 숲속이 아닌, 숲 위를 걸을 수 있는 체험과 수려한 전망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기

대가 높다. 장성군은 계단이 없고 경사가 완만한 ‘무장애 숲길’로 설계해,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와 노인, 어린이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60~70년생 편백나무와 삼나무 등으로 조림되어진 편백숲은 축령산의 보물이자 장성의 보물”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관광 핫플레이스인 장성호 수변길, 황룡강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장성군과 산림청은 ‘노령산맥권 편백숲 공간재창조사업’을 통해 축령산 상부의 우물터에서부터 장성치유의숲 안내센터까지 이어지는 무장애 숲길을 하늘숲길과 연결하고, 축령산의 관광자원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삼을 방침이다. 한편, 노령산맥권 편백숲 공간재창조사업은 축령산과 문수산을 하나로 묶어 휴양·치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사업’ 가운데 하나다. 2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오는 2022년 무렵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 담양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

### 문화·복지·편의 등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인구 유입 기대

담양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공모에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복합문화센터는 2022년까지 국비 28억원, 지방비 13억원 등 총 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문화프로그램 운영장, 체육시설, 편의점, 1인 창업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공간 등 근로자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할 공간으로 구축될 예

정이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간 노후 산단, 특화형 산단에만 지원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모든 국가 및 일반산단으로 확대했다. 특히 현재 입주 진행 중에 있는 에코하이테크 산업단지의 선정으로 향후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 곡성군, 착한가격 16개소 지정 지역 물가안정 선도

곡성군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2020 착한가격업소 16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착한가격업소는 기존 착한가격업소 중 재지정된 곳이 3개소, 새롭게 지정된 곳이 13개소다. 선정된 업소들은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업소별 1백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곡성군은 군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으로 지정된 업소들은 곡성군으로부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받게 된다. 곡성군은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매년 일제 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는 착한업소 지정이 취소된다. 곡성=김광휘 기자

## 나주시, 농기계 임대료 면제 읍 연말까지 연장

### 농기계 118종·1286대 임대료 전액 면제... 농가 경제적 부담 해소 기여

전남에서 가장 많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나주시가 농기계 임대료 면제 기간을 읍 연말까지 확대한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전액면제 기간을 당초 7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농업인은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7개소)에 보유중인 118종, 1286대의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 방

학 개학 연기, 휴교 등으로 농산물 유통·소비 부진에 처한 지역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임대료 면제를 실시한 지난 3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나주시역 4850농가에서 2억6800여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출입국 통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워진 농촌의 인력난 해

소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소비 위축,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제적 여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화순군, 왕우렁이 수거 시연회...“생태계 교란 피해 방지”

### 왕우렁이 유출 방지 시설 설치비 지원·2188농가에 보급 완료...오늘 수거 행사



화순군이 지난 5일 춘양면 우봉리 친환경단지 일대에서 왕우렁이 수거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에 우봉리 친환경단지 생산 농가, 지역의 우렁이 생산자 단체,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우렁이 피해를 없애기 위해 농수로와 논 주변에 올라와 있는 우렁이를 수거하고 알을 제거했다.

화순군은 2020년도에 일반 논 2689ha, 친환경 논 1253ha에 4억 6000여만 원 상당의 새끼우렁이를 지원했다. 친환경단지를 중심으로 우렁이 농법을 이용한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논벼 재배농가의 제조비용 등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우렁이가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개체 수 늘리면서 생태계 교란 등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지고 있어 월동 왕우렁이 일제 수거 시연회를 열었다. 화순군은 올해 7000만 원(보조금 6600·자부담 400)을 투입해 신규 사업으로 왕우렁이 유출 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2188농가가 방지 시설 1만280개를 설치했다. 군은 우렁이를 수거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10일에는 이서면 안심단지에서 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 회원과 함께하는 우렁이 일제 수거 행사를 열 예정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영암군 YEONGAM-GUN

기외 과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 평범한 속 한속

#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 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